

해남군, '초콜릿 거리' 활용 원도심 활성화 나선다

관광객·스포츠 선수단·가족 겨냥
1만원 이상 지출 시 2천원 할인
빈투바랩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이 최근 새롭게 조성한 원도심 초콜릿 거리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방문객을 지역 상권으로 유인하는 체류형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해남읍 시가지지를 찾는 관광객과 전국 단위 스포츠 선수단이 원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묶은 '달콤한 흥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흥보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동계 전지훈련에 이어 본격적인 막이 오른 봄철 스포츠 경기 시즌을 맞아, 해남을 찾은 선수단과 가족들의 발길을 원도심 상권으로 이끌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핵심 이벤트는 해남읍 상권

내 일반 매장에서 1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사한 영수증을 초콜릿 판매장에 제시하면 2천원을 즉시 할인해 주는 상생 프로모션이다.

군은 젊은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장 내에 전용 QR코드를 비치해 영수증 등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초콜릿 거리의 핵심 거점 공간인 '달콤초코 빈투바랩(Bean to Bar Lab)'에서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감 만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참가자들은 카카오 원료가 담긴 초콜릿으로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접 배우고 만들어볼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과 단체 선수단 사이에서 최고의 지역 체험 관광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초콜릿 거리에는 달콤초코, 호박당, 공심당, 피낭시에, 오늘하루 등 5개 전문 매장이 입점해 각기 다른 매력의 수제 초콜릿과 고급 디저트



해남 초콜릿 거리에 자리한 '달콤초코' 매장.

〈해남군 제공〉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고구마와 밤호박 등 해남을 대표하는 명품 특산물을 최고급 카카오 원료와 절묘하게 접

목한 차별화된 상품들은 입소문을 타며 원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앞서 전남 최대의 스포츠 마케팅 선진지로 꼽

히는 해남군은 올해 동계 전지훈련만으로 연인원 4만1천여명을 유치해 무려 4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군은 올해 치러질 23개의 굵직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통해 유입되는 풍부한 유동 인구가 경기장에만 머물지 않고 원도심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거대한 소비 동선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단순한 특화 거리 조성을 넘어 상인들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와 디지털 문화를 결합한 원도심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지훈련과 스포츠 대회가 단순한 체육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초콜릿 거리와의 융합 마케팅을 통해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방문객들이 최근 문을 연 '하멜의 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병영면 '하멜의 장소' 개소...맥주·커피 시음

6월30일까지 팝업스토어 운영

강진군이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병영면 일대의 상권과 관광을 활성화에 나선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드 공모사업으로 병영면에 하멜촌 브랜드관인 '하멜의 장소'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이곳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하멜촌 맥주와 커피를 방문객들이 오감으로 직접 경험하고 시음할 수 있도록 기획된 핵심 홍보 거점이다.

내부 공간은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해 맥주 원료 체험부터 브랜드 스토리 소개, 시음 및 구매 상담, 남도 주류 연계 콘텐츠 등 다채로운 테마

존으로 세밀하게 꾸며졌다.

또한 한달 단위로 새로운 콘셉트의 팝업을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이달에는 하멜양조장의 신제품인 '브라운 에일'을 집중 조명하고 오는 5-6월에는 계절에 걸맞은 다채로운 주류를 소개할 계획이다.

하멜의 장소는 오는 6월3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방문해 강진만의 특별한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가 지역 생산품의 매력을 알리고 병영의 문화 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안팎에서 사랑받는 생활 관광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최신 시설 '탈바꿈'

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선정

20억 투입 테크·포토존 등 설치

해양치유 관광 시너지 극대화

완도군이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개편한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전남도 주관으로 선정된 '2024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7년 관광진흥지구 승인

이후 낡고 훼손된 명사십리 일원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 출입구 인근에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바다 조망 데크와 특색 있는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하고 흥물스러운 노후 옹벽 등 주변 환경을 말끔하게 정비한다.

또한 제1주차장 앞을 비롯한 총 3곳의 주요 거점에 스마트 태양광 LED 종합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주야간 상시 정확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 약자를 배려해 점자 안내판과 무장애 편의시설 표지판, 점자블록, 출입구 경사로

등을 대폭 확충해 누구나 제약 없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을 구축한다.

이외러 완도해양치유센터 외벽과 데크 로드에 화려한 야간 조명과 미디어 아트 요소를 접목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해양치유 관광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재생 사업을 전담형 지역 성장 사업인 힐링해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명사십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자연과 치유,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체류형 관광지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군, 강소농 맞춤형 브랜드 개발 추진

오는 25일까지 실무 교육

영광군은 16일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강소농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브랜드 개발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농가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1일 개강해 오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 농업인들은 브랜딩 이해를 위한 기초 이

론을 비롯해 개별 맞춤형 브랜드 제작과 복잡한 상표 출원 절차까지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가 브랜드를 구축해 강소농의 자립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지역 농가가 치열한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군, 남풍지구 행정복합타운 조성 박차

산림청·건보공단 등 MOU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축

영암군이 흩어진 공공기관을 한데 모아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국토 서남권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지사, NS종합건설과 남풍지구 행정복합타운 입주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영암읍 남풍지구 일원 27만8천 578㎡ 부지에 공공청사와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형 공원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협약에 따라 현재 도포면에 위치한 국유림관

리소와 영암읍의 건보공단 지사는 남풍지구 내 신축 이전을 약속했으며, 올해 착수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세부 입주 방안을 조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향후 3년간 치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2년간의 본격적인 공사를 거쳐 행정과 복지, 주거가 완벽하게 결합된 미래형 행정복지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완성된 남풍지구를 향후 전남관광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요 정부 기관 이전 수요를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복합타운이 완공되면 흩어진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대규모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성공 모델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 상습 침수구역 497억 투입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2029년 완공 목표

무안군이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온 무안읍 일대의 근본적인 재해 예방과 주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대규모 종합 정비를 진행한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날 무안읍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97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무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극심한 침수 피해를 겪어온 데다 지난해 복합문화센터 주변까지 수해가 번지며 정비가 시급해진 무안을 성내리와 성동리 일원을 핵심 공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군은 오는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2만4천㎡ 규모의 대형 저류지와 펌프장을 신설하고, 6.76km 구간의 하천 개수 및 205km의 노후 우수관거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총 402억원 규모의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돼 도심 침수방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소중한 현장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 무안읍을 어떠한 기상 이변과 집중호우에도 끄떡 없는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노동부 목포지청, 대불산단 조선업장 안전점검

추락 방지 조치 미흡 등 시정 지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대불산단 조선업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나섰다.

16일 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최근 남호재 지청장은 조선업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사진> 이번 점검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고소작업과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상시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대불산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평일보다 안전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주말 시간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선박 블록 추락방지 조치 미흡, 지

게차 후진경고등 미작동, 가스 배관 분기관 미식별로 인한 혼용 사고 우려 등 일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목포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 조치를 지시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독려했다.

남호재 지청장은 "관리·감독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주말일수록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한 순간의 방심과 단 한 차례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지청은 대불산단 내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이달 중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